

한국사회 좌파 논쟁의 실상

이 은 주*

I. 머리말

이 글은 국내의 정치적 담론에 등장하는 '좌파' 논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좌파 담론화가 지니는 괴이한 특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 괴이한 특징은 마치 농약으로 이미 황무지가 되어버린 토양과 같이 대화의 역동성이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거나 건설적인 가능성을 잠식시키고 말뜻을 왜곡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팽배한 좌파 논쟁은 다양하면서도 유동적인 현상들을 좌파로 단정하며 그 실태를 왜곡시키며 그 '좌파' 현상들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건설적인 여론 형성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풍토를 형성한다.

좌파 논쟁의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먼저 좌파라고 낙인찍힌 필자의 정치적 성향들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자와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불특정 다수를 좌파로 규정하는 것이 부당함을 증명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좌파 논쟁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내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있다고 보고 그것은 개념의 양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아울러 가장 생동감 넘치는 여론 형성 계층인 20-30대의 젊은이들에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에 비취 그들을 좌파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준다. 맺음말 부분에서 국내의 좌파 논쟁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 경희대

II. 필자의 좌파 논쟁에 대한 경험

필자는 2001년 이후 노무현 대통령 선출 시기부터¹⁾ 시작해서 최근의 서울 시장 선거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친히 어울리는, 당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속했던 서민계층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좌파로 낙인찍히며 황당함을 느낀 적이 있다. 필자가 외국 유학에서 귀국한 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고 하니 대뜸 ‘좌파’라는 소리가 들렸다. 황당했다. 그 다음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필자는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마땅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투표소 박스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제 3정당의 이회창 후보를 찍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정부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내 비쳤더니 ‘역시 좌파야’라는 반응이 있었다. 근자에는 박원순 후보에 대해 말을 꺼내기 무섭게 “그 사람, 서울광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빨갱이다”라고 하길래 “그 말의 뜻은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하니 “음 좌파였지”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 말에 필자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르다”라고 했더니 그런 어중간한 회색성향이 더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필자가 느낀 것은 황당함이었다.

필자는 필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반성적 방법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좀 더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현상들을 통해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 위해서이다. 유사한 현상들이나 경우들은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현상들을 기술해 봄으로써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역사적 배경에 특별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할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굳이 찾으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현실

1) 필자는 김대중 정권 시절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적 조건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성장한 가정 환경 또한 그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였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고 학창시절 이런 저런 상황에서 기득권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구별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기득권층에 속해서 누리는 우대를 불편하게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정치 현상에 대한 필자의 반응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현 정부를 비롯해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계층의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부유층 인사가 많다는 보도를 접한 것과 또 현 정권이 정권 임기 초중반까지 추구해온 친대기업 정책 등을 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친대기업 정책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해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경제관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노선을 선택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대기업 성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권이 추진한 전국토의 건설화도 정책의 순수성이 의심스럽고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 정권의 인사들도 그만큼 부정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들게 하면서 현 정권은 기득권층에 속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전일까? 이명박 정부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환경위기의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과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현상들을 통해 필자의 정치적 성향을 현상학적으로 구성해 보면 서민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당파를 떠나 바람직한 인물을 선호하는 유동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국내에서 좌파로 불리는 불특정 다수가 앞에 기술한 현상들에 나타난 필자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정치적 성향이 서민적이면서도 유동성이 강하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다. 이번의 시장 선거 직전까지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한 변동 추이를 보인 사실과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한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친서민적이고 유동적인지를 증명해 준다. 안철수 교수의 지지

를 받으며 박원순 후보에 대한 무비판적 호감이 생겼지만 선거전을 통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서민적이지 못한 사생활이 노출되며 그 선호도는 감소하였고 그 와중에 박근혜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나경원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였으나 나경원 후보의 역대 피부과 회원제 논란이 일고 박원순 후보가 안철수 교수의 지원을 받으며 결국 당선되게 되었다.

이번 시장 선거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유동층 유권자의 성향을 보면 친서민적이면서 깨끗한 인물에 대한 강한 감성적인 선호를 보이지만 사실적 자료를 접하며 이지적인 판단과 균형을 유지한다. 물론 쏟아지는 정보들이 신뢰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지적 판단이 흔들린 점도 있었다. 앞에 열거한 성향들을 지닌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

Ⅲ. 좌파란?

그러면 도대체 ‘좌파’는 무엇을 의미하나? 국내에서의 좌파 논쟁에서 ‘좌파’라는 칭호는 완전히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는 아니다. 우파의 비판적 입장 내지는 왜곡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주관적 뉘앙스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제 좌파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들은 분명 공산주의자는 아닌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북성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나? 북한이 세습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을 지속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나? 그 친북성향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능가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중 좌파로 분류될 99% 이상이 앞에 열거한 것들에 해당하는 ‘진짜 빨갱이’는 아닐 것이다. 좌파로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친북성향은 아마도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한 친화력보다는 동포애로 인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정치적 체제가 다른 북한에 대해서조차 무조건적인 적대가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태에 임하겠다는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고상한’ 자유주의를 포방하는 부류들 중에는 6.25전쟁을 겪지 않고 반공교육도 받아 본 적이 없는 20-30대같이 북한 체제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지적 개발에 의해 객관주의와

중립주의를 '송배'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진짜 빨갱이 부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란 법도 없다. 노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 6.25 전쟁 이후 상황에서 북한 공산주의를 쫓았던 사람들 속에 그러한 성향이 잔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한국이 겪은 역동적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그러한 성향이 많이 퇴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수적으로 매우 적고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형편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좌파 논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국내에서의 좌파 논쟁에서 좌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좌파로 낙인찍히는 사람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권이 내놓은 친기득권층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처지와 고충을 호소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엄밀히 말해서 보수적인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좌파로 낙인찍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동기라는 것이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층이든 서민층이든 이기적이긴 마찬가지이다. 그런 상황에서 빈곤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의 문제들은 소홀히 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서민들 대부분의 경우 휴머니터리안적 혹은 사회의 개혁을 위한 순수한 동기부여가 희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개혁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포괄적이지 못한 요구를 할 때 정치인들은 그에 영합하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소홀히 되는 부분들의 개선이 전제될 때 선진화는 가능하다.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또한 좌파로 불린다. 시민단체를 포함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서민적 성향을 지니며 신자유주의와 같이 지나친 자본주의 정신의 확장과 제도의 팽창이 가져온 폐단이나 기득권 정권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새로운 추세에 민감하고 빠르게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개혁

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은 초당적 성격을 띠는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좌파로 몰리는 이유는 보수, 친기득권층의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는 입장을 보이며 기득권층의 이익을 저지하는 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좌파 논쟁에 대한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 중 북한체제 자체를 옹호하는 친북주의자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희박하다는 것, 좌파로 불리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에 대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적대의식을 지양하고 객관적 내지는 중립적 자세로 사태를 바라보는 특징을 지니며, 좌파로 불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득권층에 속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 시민단체 등의 개혁세력은 국제적 새로운 추세에 민감하며 빠르게 수용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IV. 근대성과 언어의 양극성

이제 좌파 논쟁에 깔린 논리적 성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지적 활동은 압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사물 인식은 판단에 의해 완성된다. ‘이것이 책상이다’ 혹은 ‘이것이 책상이 아니다,’ 이 두 명제 중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참이 아니다. 이성적 논리는 개념의 양극성²⁾으로 인해 모순률을 저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수반한다. 마찬가지로 사물 인식을 비롯하여 모든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에 관한 경험을 나타내는 언어는 그와 같이 양극성을 지닌다. ‘생겨나다’는 ‘소멸하다’의 반대이며 ‘항상하다’는 ‘더 이상 없다’의 반대이며 ‘동일하다’는 ‘서로 다르다’의 반대이며 ‘갔다’는 ‘왔다’의 반대이다.³⁾ 우리의 일상적 언어생활은 두 양극성을 띤 개념들 중 하나를 긍정하면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부정해야만 모순률을 저축되지 않고 긍정된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좌파와 우파 역시 그러한 양극성을 지닌 개념들이다. 양극적인 개념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적 언어생활은

2) R. Puligandla, *Fundamentals of Indian Philosophy* (Abingdon Press, Nashville, New York, 1975), 85.

3) 용수보살 저, 김성철 역주, 『중론』 (경서원, 2001), 25.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한다. 이러한 성향의 사고방식은 유기체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니는 실제 삶의 현상을 바라보자. 작년의 감나무의 나뭇잎과 올 해에 난 나뭇잎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일상적 언어의 논리로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실제 세계이다. 우리의 일상적 언어는 실제 세계를 나타내 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 언어가 얼마나 실제의 변화무쌍한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가? 그러나 인류 문명사회의 운명은 언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이름을 필요로 한다. 사물을 개념으로 지칭해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개념으로 의미를 한정지어주어야만 그나마 한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모순들을 무시하면 혼동을 야기할 것이다.

최선을 추구하고자 함에 우리의 일상적 언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할까? 언어는 개별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기능을 하며 그러한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는 삶의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한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언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좌파 논쟁의 경우 상대의 정치적 성향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이해하려 하면서 그 특징들을 하나의 단어로 지칭해야 하는 언어생활의 한계를 알며 좌파라는 용어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 지칭한다면 포괄적이며 변화 속에 있는 현상을 하나의 단어와 전적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실제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신장하는 가운데 일상적 언어의 한계를 의식하며 언어를 사용할 때 대화의 양상이 훨씬 더 열린 성격을 띠며 역동적이며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한 대화의 과정은 주관적 관념은 극복되고 진리의 영역은 점점 더 열리게 하여 서로 조화로우면서도 현상적으로는 다양함을 지니는 전일성의 통찰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일상적 언어의 양극성과 맞물린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는 것은 중도로 이끌 수 있다. 중도를 터득하지 않고는 화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중도를 표방하는 부류가 많이 늘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도를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중도를 잘 나타내주는 내용들이

있다. 붓다는 중도를 터득하지 않고는 진리의 눈이 뜨일 수 없다고 하였으며⁴⁾ 중도란 쾌락이든 고행이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악기의 현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듯 명상수행을 통해 믿음, 지혜, 삼매, 정진, 마음챙김의 다섯 가지 능력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닦는 것이 중요하다.⁵⁾ 이러한 정신 수양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양극성을 띤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진리의 눈을 가리는 지 주의 깊게 꿰뚫어 보는 것을 닦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음 속에서 언어의 늪에 빠지게 된다.

V. 좌파 논쟁의 시대착오성

이제 필자는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여론 형성 세대인 20-30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에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을 고찰해 보고 그들을 일컬어 좌파라 지칭하는 것의 부당함을 증명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 지구적으로 빈부의 격차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보수 정권이 '사회주의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이분법적인 사고에서의 좌파-우파 논쟁이 유명무실해졌음을 강조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쉽게 수용하고 변화를 자신들의 삶으로 융화시키는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현실이 증명해 준다. 한국 사람들의 변화 수용 능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라 호감을 주는 감각적 자극과 더 나아가 깊은 감동을 주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여 한국사회는 짧은 시간에 매우 다양한 한 사회가 되었다. 그 다양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인터넷 설비가 많이 보급되

4) Bhikkhu Bodhi (trans.), *The Conn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Samyutta Nikāya* (Wisdom Publication, Boston, 2000), 1844. 일아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2009), 62-63.

5) Nyanaponika Thera & Bhikkhu Bodhi, *Numerical Discourses of the Buddha* (Altamira press, 1999), 168.

고 높은 서비스의 질 덕분에 대중이 온라인으로 해외의 대중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었고 서로 공유한다. 실제 생활에서도 일반인들이 해외 경험을 할 다양한 통로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문화에 대한 체험이 풍부해졌다. 어려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외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귀국하여 대학을 다니게 된 젊은이들이 적지 않으며 꽤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 중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1년 정도 영어권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학생들도 많으며 외국에서의 단기 유학이 학점인정을 받는 제도는 많은 대학들이 추진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요즘은 휴학을 하고 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 능력이 취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 한국의 현실이 그와 같은 현상을 낳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나서서 외국에서의 인턴사원제를 추진한다. 현 정부는 국제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중요시 한다.

요는 그러한 변화들이 곧 여론의 주체가 새로운 면모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전혀 다른 외국의 분위기를 접하고 체득한 젊은이들이 포함된 젊은 계층이 가장 생동감 넘치는 여론의 주체들이다. 젊은이들이 보다 선진적인 사회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 자체가 주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기회는 한국의 기존 정치 풍토가 지닌 고질적인 특징들이 대비적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판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SNS(Social Networking System)의 파급력을 주목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앞에서 열거한 것들 외에도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그들의 여론의 유동성을 좌우하는 요소들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는 여론의 주체들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논점인 좌파 논쟁으로 돌아와, 괴이하게 보일 정도로 고리타분한 성향을 보이는 정치권의 행태에 거부감을 느끼고 보다 자신들이 겪은 것과 자신들의 코드에 부합하는 부류에 호응하는 그들을 좌파라고 부를 것인가? 그들 자신은 자신들을 좌파를 따르는 부류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황당해할 것이다.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좌파·우파, 진보·보수 논쟁은 한국의 현재의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러한 논쟁은 시대착오적이다.

좌파 우파 논쟁은 사회주의·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한데 빈부의 격차 같은

시급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대기업 성향, 즉 친기득권층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조차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음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 또한 좌파-우파 논쟁의 유명무실성을 방증한다. 요즘은 보수 정부에 해당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규제조치들을 두고 자본주의 내지는 민주주의의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한 규제조치들의 예로 동반성장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책과 심야시간동안의 청소년 게임 shut-down 제도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삼성의 이진희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보호대책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통제는 자칫 사회주의의 특징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정적인 변함없는 틀이 아니다. 제도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바람직하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금융위기와 환경위기를 맞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자본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정책이다. 이진희 회장에 의해 '사회주의 제도'로 비난받은 제도들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생겨난 자본주의 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개선책이 아닐까? 어쩌면 여기서 사회주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된 자본주의 체제가 보다 바람직하고 세련된 형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닐까?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무어라 부를까? 윤리적 자본주의라고 할까?

여기서 좌파 논쟁과 연관 지어 지적할 점은 빈부의 격차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보수도 진보진영에서 내놓을만한 '사회주의'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상황을 보면 우파 내에서 좌파적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좌파-우파 논쟁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결론은 전 지구적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는 현 시대에 좌파-우파, 사회주의-자본주의 논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VI. 맺음말

이 글에서 다양한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진행된 좌파 논쟁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야당에 대한 지지 논쟁이며 또 하나는 6.25전쟁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경험한 60대 이상의 노년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논쟁이다. 그 중 좌파 논쟁의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야, 반여와 연관이 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당에 비판적이면 좌파로 간주해 버린다. 그러한 성향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근대성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문화적 영향이 우리나라에 본격화된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지난 10여년 동안 전 세계적 문화적 대변화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이미 노쇠한 70-80 노년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잔존하는 것 같다.

좌파 논쟁에 나타나는 괴이한 양상은 내용만 다를 뿐 우파 논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의 의사가 괴이한 양상을 띠고 ‘우파’로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 좌파-우파 논쟁을 그렇게 단적으로 야당-여당 지지로 간주하는 것은 여론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섬세한 변화의 움직임들을 건설적인 여론의 형성을 통해 다양함 속에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앞서서도 다뤘듯이 전 지구적인 당면 과제인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과 국내의 여론 형성 계층 중 가장 생동감이 넘치고 반응이 빠른 젊은 세대의 특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좌파-우파 논쟁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모두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에서 출발하는 듣기이다. 주관적 판단이나 시비분별을 하기 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 등의 주관적 관념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관적 관념 형성 과정은 우리가 어릴적부터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 힘은 압도적으로 강한 반면 우리의 교육에는 그러한 힘

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적 훈련이 부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비운 마음에 상대의 말이 그대로 들리게 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비우고 먼저 상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겠다는 자세로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안다면 대화의 역동성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들을 때 명심할 것은 좌파, 우파라는 단어들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방편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점을 유념할 때 상대를 좌파로 단정하기 보다는 그 변화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깊이 뿌리박힌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년 세대일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 땅에서 북한 공산주의를 경험한 바 있다. 시대착오적인 좌파·우파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입김은 세대의 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있다. 세대의 교체를 또 이분법적 사고로 받아들이면 모든 나이든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지혜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노장들이다. 소장들은 구태의연함이나 시대착오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혜롭지는 못하다. 노장들 대부분은 그러한 폐단을 저지르는 부류에 속하지만 일부는 지혜로울 수 있다. 자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 자신은 어떤 부류의 인간인가?